

심헌문화재단, 지역 우수 인재 158명에 장학금 2억5600만원 전달

18년간 1523명에 장학금 21억8000만원

심헌문화재단(이사장 박치영)은 지난 17일 장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제18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사진> 심헌문화재단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역 우수 인재 158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이날 2억5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모아건설에서 후원하는 심헌문화재단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 158억원의 출연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18년간 1523명의 장학생에게 총 21억 8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박치영 이사장은 "미래 세대 학생들이 꿈을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



로도 심헌문화재단은 학생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치영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전남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과 광주한마음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 광주북구장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학병원 후원 등 다양한 기부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에 공헌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T, 완도군에 가뭄 식수난 해소 생수 5000병 기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준진)는 지난 20일 완도군을 방문해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먹는 물 5000 병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기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남부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이뤄졌다.

완도군의 최근 1년간 강수량은 평년 1425mm의 56% 수준인 791mm에 그치고 있어 생활용수는 물론 먹는 물까지 바닥난 상황이다.

특히 완도군 노화읍, 금일읍, 보길면, 소안면은 가뭄 심각 단계에 처해 있어 식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준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완도군민의 식수난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문제 해결과 농어촌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제5기 이사회 워크숍 진행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최근 광주시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제5기 이사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이사회 출범에 맞춰 선임된 이사들의 경영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재단의 현황, 2023년도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상호 소통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5기 이사회는 지난 12월 26일까지 3년간 광주문화재단 임원으로 활동하며 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정관과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 핵심적인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사

- ◆전남도교육청
 - ◇ 4급 승진 ▲ 여성경 목포도서관 독서문화부장 ▲ 노병수 목포대학교 파견 ▲ 김종만 전남미래교육재단 파견
 - ◇ 4급 전보 ▲ 김현철 나주도서관 독서문화부장
 - ◇ 5급 승진 ▲ 김현철 교육시설과 ▲ 서유경 목포도서관 독서문화과장
 - ◇ 5급 전보 ▲ 장동준 행정과 ▲ 박준수 교육시설과 ▲ 김현석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장우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나훈원 목포도서관 운영기획과장
 - ◇ 5급 본청 전입 ▲ 현규남 감사관 ▲ 김병근 정책기획과 ▲ 여순철 안전복지과 ▲ 이승학 학생생활교육과 ▲ 최병문 재정과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병무청장, 여수 여명학교 방문 사회복지무원 격려



김용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21일 여수 여명학교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지무원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장애학생 곁에서 학습활동 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무원에 대해서도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했다. <광주지방병무청 제공>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추천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00 두뇌공조(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프린세스 바리(재)	00 애니 갤러리 30 안녕 자동차야 45 헬로키티 12 봄바
12	00 KBS 뉴스 12	1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배틀트립 2(재)	00 12 MBC 뉴스 25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40 모범택시 2(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3	20 팔도밥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항 3(재) 30 TV 유지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 2(재)	55 5 MBC 뉴스	00 kbc특선 생명의 신비, 지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내 친구 반인반어 15 소스리아 -사라진 레시피카드를 찾아서 30 골쟁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연모(재)	00 일타강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국민의 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		30 라디오스타	40 순정파이터
11		00 9층 시사극 40 세상의 모든 다큐		
12	20 KBS 뉴스 30 KBS 중계석 <오페라 '순이상춘' 1부>	35 아이 러브 스포츠	10 꼭두의 계절(재)	20 나이트라인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히어로 씨클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극한직업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50 건축탐구-집
08:00 똥덩쿨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극대 슈퍼공룡파워	14:45 한국의 둘레길	<내 인생의 피에스타 콜롬비아 -비바 라 비다! 북부 힐링 로드>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꾸러기 천사들	<불이 오나 불 3부 고맙다, 미나리!>
09:05 최고!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시몽	16:15 페퍼 피그	22:45 인간과 바다
09:35 타타와 쿠마	16:25 슈퍼퍼 인글리시(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6:40 똥덩쿨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2일(음 2월 3일辛亥)

36년생 말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48년생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60년생 불투명한 형국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72년생 의욕이 충만해지고 용기가 분출하는 계기가 된다. 84년생 따오기는 목욕을 하지 않아도 회도다. 96년생 원상 회복의 기쁨이 크다. 행운의 숫자 : 18, 95

37년생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겠다. 49년생 유혹으로부터 오는 우환을 막아내야만 한다. 61년생 무심코 한 행위가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국세이다. 73년생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다. 85년생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니라. 97년생 재난은 무지와 방심에서 비롯된다. 행운의 숫자 : 41, 51

38년생 맹점을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50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62년생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 74년생 마음이 설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86년생의 심스런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98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7, 96

39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니 미련을 버리고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 51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 63년생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로다. 75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87년생 목적이식이 분명해야만 한다. 99년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9, 76

40년생 현재의 상태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다. 52년생 생각을 달리한다면 새로운 일이 보일 것이다. 64년생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76년생 완개하는 이들과의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88년생 이타심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길하다. 00년생 설계에 빈틈이 없어야 진행이 원활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62

41년생 일정의 차이에 따른 침체한 대립이 예상된다. 53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철저히 대처하라. 65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77년생 지연된다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89년생 주머니 받거나 하며 박자가 잘 맞았다. 01년생 시각적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자. 행운의 숫자 : 38, 82

42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54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66년생 정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처지에 서게 된다. 78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적폐가 해소되면서 불편함이 사라지리라. 90년생 의미와 가치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02년생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4, 97

43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55년생 시시각각 변화하는 판국이니 형세의 변화를 조 절하라. 67년생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79년생 중지를 모았을 때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 91년생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03년생 노파심은 활동력을 저하시킬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4, 61

44년생 파격적으로 변화한 위상에 당황할 수도 있다. 56년생 환경 감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니 실무에 능해야 한다. 68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0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속도감도 중요하다. 92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04년생 고뇌의 깊이가 심해진다. 행운의 숫자 : 01, 89

45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 편안해라. 57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69년생 애감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81년생 내 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고 안전하다. 93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될 것이다. 05년생 통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2, 79

34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 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46년생 간접적인 조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58년생 단순하거나 감각적인 판단은 오류를 부를 것이니 다차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처리하라. 70년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낫다. 82년생 기존의 방법을 써야 효과적이다. 94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들다. 행운의 숫자 : 35, 75

35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47년생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 작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59년생 이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라. 71년생 기쁨이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83년생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능률이 오른다. 95년생 원인 요소와 기초를 같이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2, 74